

DONG-A UNIVERSITY since 1946



75th
Anniversary
1946-2021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7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17번째 소식지



Years
Anniversary

23만 동문파워,
동아 75년을
동행하다

정·재계, 법조, 문화, 체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아인!
푸른 파도가 돼 남다른 패기와 역동성을 펼쳐보자.
75년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깊게, 푸르게 물들여가자.
사회 곳곳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동문들이
거대하고 찬란한 힘이 돼 걸잡할 것이다.

Issue Focus

- 04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동아대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다
- 10 동아대학교 개교 75주년, 더 높이 비상하라!
- 12 미래 교육을 선도할 캠퍼스로 거듭나다

Dong-A People

- 16 100주년을 향해 하나되어 가다. 제16대 이해우 총장
- 18 든든한 23만 동문을 대표하다. 신정택 총동문회장
- 20 자랑스러운 동아대의 명맥,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길.
이기훈 총학생회장

Hot News

- 22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기획과제 선정
- 23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스마트챗린지사업' 선정
- 24 '마이크로모듈제' 및 '리버럴아츠 전공' 본격 시행
- 25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개소 및 '아마존 스킬즈 길드' 도입
- 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2년 연속 선정
- 27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한층 강화
- 28 박형준 시장 초청 특강 개최
- 29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8명 배출
- 30 연구실 및 학과 단위 다양한 사업 선정
- 31 동아대 교수들 각종 성과로 해당 분야 전문성 인정받아
- 32 각 분야 교수들 눈부신 연구 성과 거둬
- 33 SCI 논문 게재 및 대회 수상 등 미래 인재 '기대'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40 발전기금 기부현황
- 42 '만만한 도전' 캠페인 소개



동아대학교 소식지(동권 제117호)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대훈기획 051)898-0330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동아대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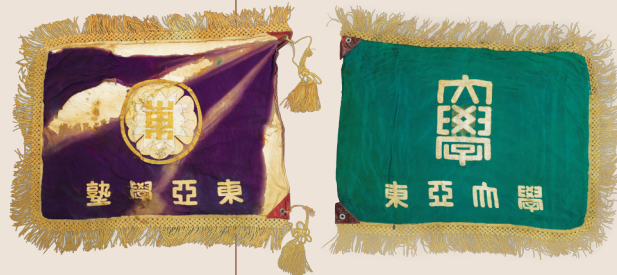
역사 속 변화의 순간

01

동아대학교는 1946년 11월 1일 개교해 75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걸어왔다. 자유, 진리, 정의를 교시로 훌륭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한 동아대.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크게 비상할 미래를 응원해본다.

1946

11.01 개교
동아학숙 깃발(좌)
동아대학교 깃발(우)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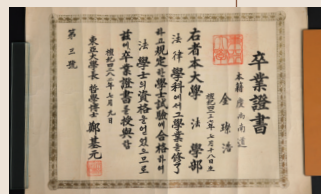
교사를 범일동으로 이전.
12월 30일 재단법인 동아학숙 설립허가와 동아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1954



구덕캠퍼스 본관건물 완공

1949



- 01
- 02
- 03

01 범일동 교사에서 기념촬영을 한 제1회 졸업생들
02 제1회 졸업식 거행
03 제1회 졸업증서

1959



02.26 종합대학교 승격 인가
04.01 정재환 초대총장 취임

1981



08.29 승학캠퍼스 신축교사 준공

1985



08.15 승학캠퍼스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 이전

1990



03.26 동아대학교병원 개원

2009



03.01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2012

DONG-A UNIVERSITY since 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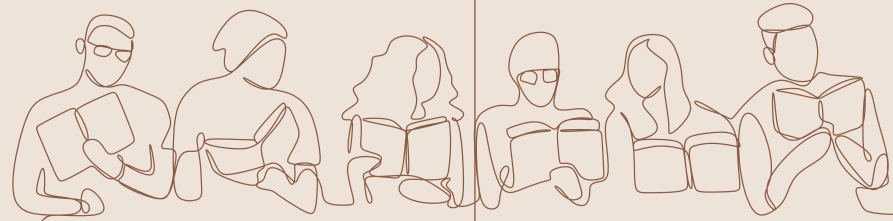


06.26 부민캠퍼스 완공
대학 규모 확대로 부민캠퍼스 조성.
2003년 법과대학, 2009년 사회과학대학과 경영대학, 석당박물관이 부민캠퍼스로 이전.
2012년에는 국제관이 완공되며 부민캠퍼스 전체 면모를 드러냈다

캠퍼스 속
혁신의 순간

02

동아대는 대학본부와 인문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등이 자리 잡은 승학캠퍼스와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으로 구성된 부민캠퍼스, 의과대학과 병원이 있는 구덕캠퍼스 총 3개의 캠퍼스가 있다. 부속기관으로는 122만 6,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과 총 3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관리하는 석당박물관 등이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캠퍼스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징의 공간이자 쉼터로도 손색이 없다.



2021



석당박물관 전경



석당박물관 진열실



한림생활관 승학2관 전경



구덕캠퍼스 전경



부민캠퍼스 전경



동아대학교병원 전경



승학캠퍼스 전경

시작 속
노고의 순간

03

오늘날의 동아가 있기까지 설립자 석당 정재환 박사의 동좌문도(同坐問道: 스승과 제자가 한자리에 앉아 정도를 논한다)라는 교육철학은 굳건한 밑바탕이 됐다. 1959년 종합대학교 승격 후 초대 총장 취임사에서 석당선생은 “대학의 경영과 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대학은 누구라도 배울 수 있게끔 개방되어야 한다. 자유로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각계 인사의 본직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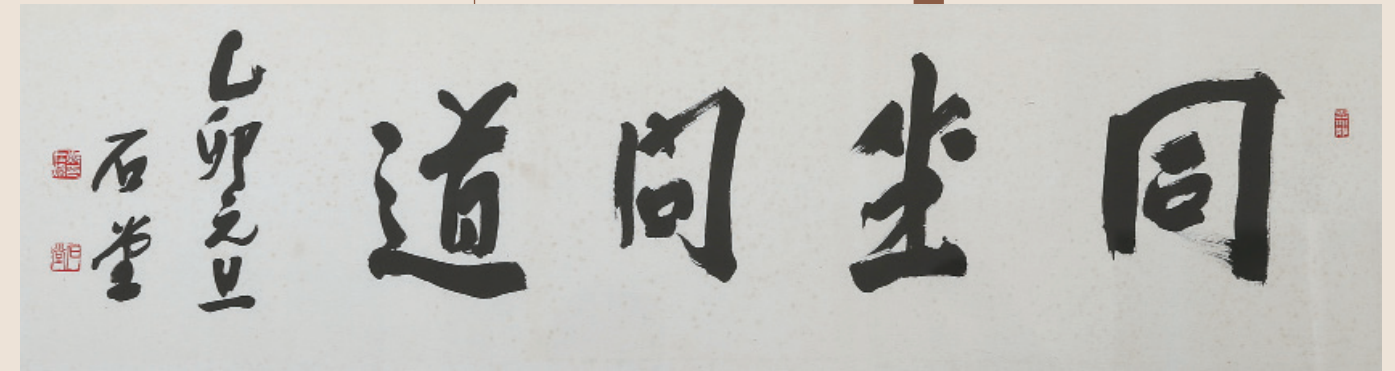
석당선생 초상화
석당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을 본으로 하여 동양화적인 기법으로 그린 작품. 석당선생의 강인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인상이 잘 드러난다



설립자 석당 정재환 박사
주요 이력

- 1904 경남 남해 출생
- 1939 일본 고등 문관 시험 사법과 합격
- 1945 부산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임명
- 1952 법무부 차관 임명
- 1959 동아대 초대 총장 취임
부산시문화상 수상
- 1970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1973 부산시 교육감 감사패 수상
- 1976 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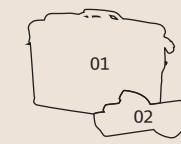
석당선생이 직접 쓴 '동좌문도(同坐問道)' 동좌문도란 스승과 제자가 한 자리에 앉아 정도를 논한다는 뜻으로, 석당선생의 교육철학이다



석당선생이 서필하는 모습



석당선생 동상



- 01 석당선생 가방
구미시찰 때도 유사한 가방을 든 것을 보아 갈색 가방을 선호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02 석당선생 안경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안경을 쓴 석당선생은 주로 윗 테두리만 검은 볼테 안경을 애용했다

동아대학교 개교 75주년, 더 높이 비상하라!

DONG-A 75th Anniversary

동좌문도(同坐問道)
철학으로 국가 발전
전인하길



김도읍 | 국회의원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모교의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박사는 “스승과 제자, 선후배 누구나 함께 묻고 답하며 공부한다(동좌문도)”라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연구와 교육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주신 23만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적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 선도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통 없이는
즐거움도 없다



이봉순 | (주)리컨벤션 대표

채근담 중에 ‘추녀 끝에 걸어 놓은 풍경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그윽한 소리를 낸다. 인생도 무사평온하다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즐거움도 알게 된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경험 또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아인들은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저력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책임감 있게 활약하기를 기대하며,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동아인 파이팅!

인재 배출의 요람
동아대,
새롭게 도약하다



전해치 | 부산대학교 홍보팀장

우리나라와 동남권 지역 최고의 명문사학인 동아대의 개교 75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교 75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아대는 국회의원장과 부산시장 등 큰 인물을 배출한 명문대학입니다. 앞으로도 옛 명성과 지금의 위상에 멈추지 말고, 급변하는 변화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으로, 더 큰 발전과 도약으로,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동남권의 주요 성장 플랫폼이 되어 다시 한 번 동아대가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명문 大東亞’로 도약하기를 응원합니다.

철학이 출렁이는
새로운 모험을
꿈꿉니다



김수우 | 백년어서원 대표(시인)

개교 75주년, 굵고 단단한 뿌리입니다. 그만큼 동아대는 지역을 지켜오고 성장시킨 공동체의 당당한 기동이며, 부산의 자부심입니다. 동아대의 큰 모험은 곳곳에 디딤돌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모험을 꿈꾸는 동아가 세상의 틈을 직시하고, 물질사회에 균열을 내는 지식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시급한 것은 철학의 회복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자본주의의 반대적인 힘입니다. 철학적 사유와 실천이 꿈틀거리는 학교, 역사와 문학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대학을 꿈꿉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꾸러가는 힘은 공존의 능력입니다. 공존은 공감을 키워내는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가 바탕이며,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생명의 비전을 세우는 데는 용기가 절대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험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찬란한
빛으로



이호진 | 부산일보 지역사회부장

4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더 큰 파도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지식의 양으로 인재를 저울질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는 문제 해결력, 종합 사고력, 소통 능력, 창의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지금을 기회로 교육 시스템을 발 빠르게 정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75년 역사와 23만 동문의 힘은 사회 어디서나 제 몫을 해낼 재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빛을 더 찬란하게 할 것입니다.

동아의 저력으로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김형진 | 부산교육청 대변인

오랜 전통의 명문 동아대 개교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전하고 소통하는 창의인재’라는 인재상에 걸맞게 ‘글로벌 명문’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빛나는 전통으로 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동아의 문을 두드리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로 등뿔 사랑받길 바랍니다. 동아의 저력을 믿고, 지역대학 위기 극복의 선봉장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역사와 빛나는 전통, 자긍심과 결속력이 강한 동문, 도전의식을 가진 재학생들이 어우러져 글로벌 명문으로 비상하길 응원합니다. 동아대 파이팅!

75년의 역사를
미래 100년
동아로



김현중 | 국회사무처 주무관

동아대의 개교 75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번 동문회 자리에서 총장님께서 학교 비전으로 인재의 가치, 학문적 소통이라는 설립정신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의 도전을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발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부 3주기 평가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낸 학교에 응원과 감사를 전합니다. 국회 생활을 하면서 동문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동문들이 가진 결속력과 끈끈함을 통해 지금도 학교 사랑과 동문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목동회 동문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75년 동안 선배님들이 만든 역사가 후배들이 미래 100년 동아로 동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동아대 졸업생에서
소상공인으로
자리 지킬 것



마경득 | 화반 사장

동아대 인근에서 10여 년 넘게 머물렀던 졸업생, 소상공인으로서 복직거렸던 학교 앞 거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인적이 드문 요즘의 풍경들이 교차돼 아른거립니다. 학교 주변의 상점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찾아올 졸업생, 향후 동아대를 빛낼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들로 붐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 앞 거리가 학생들과 주변 상인들로 함께하는 낭만적인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동아대 개교 7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미래 교육을 선도할 캠퍼스로 거듭나다

동아대학교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통은 지키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새 단장으로 앞으로도 동아대는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새로 단장된 캠퍼스 시설

-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약칭 뉴턴공원)
- D-Square
- 하이브리드형 자동녹화 첨단강의실
- 스마트웰니스플랫폼
-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LOUNGE 進談)

1 교류와 소통의 공간

승학캠퍼스 곳곳의 변화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약칭 뉴턴공원)'은 동아대의 꿈과 희망을 담은 조형물 '드므'와 함께 캠퍼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꼽힌다. 인문과학대학 지하 1층 로비는 리모델링을 통해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라는 이름으로 거듭났다. 동아대가 표방하는 'BEYOND 교육혁신 전략(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비욘드 라운지는 형형색색의 아트월과 아기자기한 테이블로 학생들에게 휴식을 제공, 창의력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한림도서관 건물에는 취·창업지원공간인 'DAU DREAM 교육실'과 'DAU DREAM 상담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LINC+ 플랫폼 LAB' 등이 새로 생겼다. 'DAU DREAM 교육실'과 'DAU DREAM 상담실'에서는 창업·취업상담과 멘토링, 창업동아리 회의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히 DAU DREAM 교육실은 창업자 간 교류와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LINC+ 플랫폼 LAB'에는 3D프린터 10여 대와 VR기기, 드론, 플로터(도면·현수막 등 다양한 규격의 인쇄가 가능한 특수 인쇄기), 소형레이저커팅기, 설계용 워크스테이션 등이 구비돼 3D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개발 교육,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교육, 디자인 성과물 출력 등이 가능하다.

뉴턴공원 조형물 '드므' | 다우 드림(DAU DREAM) 교육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위한 복합 공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의 하나이자,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체험하고 연구·분석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인 'D-Square'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도 눈길을 끈다. 한림도서관에 위치한 'D-Square'는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Living Lab)'과 '디자인 씽킹 룸(Design Thinking Room)', '콜라보레이션 카페(Collaboration Cafe)', '큐앤에이 월(Q&A Wall)'로 구성돼 있다. 특히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엔 '모바일 뇌파측정장비 및 AI 분석플랫폼'과 '산소발생 복합테라피 시스템(Oxyspa)', '근골격 통합 검진 시스템(Exbody)', '가상현실 기반 재활 훈련 솔루션', '음파진동운동기' 등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측정과 데이터기반 중재, 정신건강 힐링 등이 가능하며 학생·교직원·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첨단교육환경 조성, 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동아대는 지난 2019년 교육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돼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은 '경영정보학과'와 '식품영양학과', '의약생명공학과', '건강관리학과' 등 4개 학과의 다양한 전공과목을 융합해 스마트헬스케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디-스퀘어(D-Square)



3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할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인프라

뉴 노멀 시대를 맞은 대학 강의실에는 큰 변화가 있다. 지역 대학 최초로 온-오프라인 동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자동녹화 첨단 강의실'은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온라인 강의를 선도하고 있다. 자동녹화강의실은 On-러닝 체계 강화 및 O2O(Online to Offline) 교육 활성화 필요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쌍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오프라인 강의와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고화질 동영상 수업을 촬영해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적 카메라가 강연자의 움직임에 따라 강의와 판서를 촬영해 자유로운 촬영이 가능하다. 동아대는 앞으로도 강의실에 자동녹화시스템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아대는 지난 2017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자체 촬영이 가능한 '블랙스튜디오'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지역대학 중 처음으로 융합교육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에 최적화된 '협력형 강의실'을 구축, 각 단과대학 건물마다 협력형 스마트 강의실을 만들었다. 첨단 통합 미러링 시스템을 갖춘 협력형 강의실은 코칭-PBL(문제중심학습) 등 혁신적인 교수법을 적용한 강의에 최적화된 공간 만큼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이러닝 고도화를 목표로 2만여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가상대학(LMS) 오픈과 함께 1인 녹화도구 '닥쭌', '에버렉', 실시간 화상수업 'Zoom'을 도입해 안정적인 온라인 강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블랙스튜디오와 하이브리드형 자동녹화 첨단강의실(협력형 강의실)



4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강 증진 시스템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1층에는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센터 '스마트웰니스플랫폼(동아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센터)'이 구축됐다. 동아대 LINC+사업단이 설립하고 체육학과가 운영책임을 맡은 '스마트웰니스플랫폼'은 스포츠의학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기능성운동트레이닝 관련 연구 환경 조성 지원 등을 담당하며 지역민들의 신체·정신적 웰니스(Wellness) 균형 향상 등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스마트웰니스플랫폼에선 총 5단계로 ▲교내 전문인력을 통한 건강상담 ▲운동평가 실시 ▲재활운동 진행 ▲근력훈련과 특정조건에 반응을 보이는 컨디셔닝 훈련 ▲사후평가 등이 진행된다.

특히 체육 특기생을 위한 엘리트 프로그램과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프로그램, 생활체육인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건강관리, 체형교정, 비만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이뤄져 체육 특기생을 비롯한 생활체육인과 지역민 등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웰니스플랫폼은 목적별로 세분화된 트레이닝 공간과 과학적 컨설팅, 전문가 주도 프로그램,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은 전형필 교수가 책임을 맡아 학교기업(동아브랜드)으로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마트웰니스플랫폼(동아 기능성 운동 트레이닝 센터)



5

학생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실현할 공간

재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교육 등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구하는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LOUNGE 進談)과 진로개발센터도 문을 열었다.

진로카페와 진로개발센터는 승학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은 언제든 찾아가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정보탐색, 진로활동상담 등을 할 수 있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로개발센터는 개인상담실 2개와 집단상담실 1개 등으로 구성돼 예약 후 방문하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로상담과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진로로드맵 구축, 진로교육 관련 연구는 물론 계열별 온라인 진로상담·비교과 프로그램 소개·학생 참여활동 영역 등 오픈플랫폼 구축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졸업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교육에 참여하는 전국 유일의 선순환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이미 많은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던 동아대는 학년별·분야별 취업 동아리 및 선배 참여 프로그램을 더 고도화했다. 전국대학 최초로 구축한 실시간 온라인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다이다(DA-ITDDA)'는 취업분야별 재직 선배들과 후배들을 이어주고 있으며, '라포 시스템(DAU RAPPORT)'을 통해 전 주기적 학생맞춤형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진로카페 라운지 진담(LOUNGE 進談)



6

지역 산업과 경제를 이끌 서부산 허브

앞으로 동아대엔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와 '랩 투 마켓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이다.

드론 허브센터는 동아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의 '산업기술 기반구축혁신사업'에 선정돼 'Daas(Drone as a Service)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상 5층 규모로 건설될 드론센터는 통합관제실과 코딩교육·실습실, 분석실, 전시실, 핵심부품 실험실, 격납고 및 정비실, 창업·기술지원실, 입주기업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경제진흥원과 협력해 부산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와 각 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 지원, 국내 드론 기업 정보 교류 시스템 개발, 드론 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론센터를 국내 드론 산업의 핵심 개발 센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동아대는 대학 자체 수익모델발굴사업의 하나인 '동아브랜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랩 투 마켓 플랫폼(Lab to Market Platform)' 건물 신축도 추진 중이다. 초고압가스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에 나선 고기능성 밸브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품, 헬스, 코스메틱 등 대학 연구실에서 이뤄진 기술을 시장까지 진출시키는 공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드론 허브센터 조감도 |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100주년을 향해 하나되어 가다

제16대
이해우 총장



어느덧 이해우 총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모교 출신 총장으로 개교 75주년이 더욱 뜻깊은 만큼 이해우 총장은 앞으로도 동아대학교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화와 혁신의 동아대

지난 1년간 이해우 총장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대학기본역량진단 3주기 평가 집필진, 각 부서 행정직원 등을 만나 격려도 하고 대화도 나눴다. 동아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 기업인, 국회의원 정부기관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In)서울 대학으로의 집중화 현상, 학령인구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아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온 많은 경험이 있고,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23만 동문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대는 1주기, 2주기 정부 평가에서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3주기 평가에서도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도 부울경 사립대학 중 최고 수준인 99.26%를 달성했고, 대학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동아브랜드 개발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수 채용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꿨다. 산업현장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산학 전임 교원을 임용한 것이다.

“다양한 기업들을 직접 찾다니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입장에서 취업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인 만큼 동아대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갔다는 이해우 총장의 말에서 지난 시간의 노력들이 엿보이는 듯했다.



소통과 협력으로 빛날 미래

이해우 총장은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자주 한다. 교수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학생들이 꿈을 펼치고 취업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발전 또한 총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대내외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동아가족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교 100주년을 향해 가는 동아대가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동아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집중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해우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MZ세대에 맞춘 홍보 및 소통 채널 다양화 등 경쟁력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바뀐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대학교육이 실험이나 실습, 설계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강의나 혼합 강의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수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 중심으로 강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나 토론 및 질문,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해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해우 총장의 노력들이 앞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이 개교 75주년을 맞은 모교에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이로써 신정택 회장이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동문들의 릴레이 기부를 희망하며 솔선수범했다는 신정택 회장의 아름다운 실천은 건학 100년을 준비하는 모교의 발걸음에 한층 힘을 더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신념

신정택 회장은 '사람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대학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해왔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모교와의 인연을 이어온 그는 학교에 대한 강한 애 정을 보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대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하고 사랑받 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자신의 신 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나눔도 실천 중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부는 계속돼야 합니다. 많은 대 학들이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 았으면 좋겠어요."

1978년 세운철강(주)을 설립한 신정택 회장은 오랜 세월을 걸쳐 회사를 키워오며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 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세운철강(주) 은 직원 수 300여 명의 중견기업이며, 포스코 가공 센터로 당당히 위상을 굳혔다.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파산 위기에 몰리 기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정과 신 력로 거래를 늘렸고, 위기가 찾아오면 이겨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1등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처음의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무 슨 일이든 목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신정택 회장이 자랑스러운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그루 나무로 그들이 되는 인재가 되길

큰 이익을 얻어 세상을 덮으라는 뜻의 '대리개세 (大利益世)는 신정택 회장의 좌우명이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만으로 는 할 수 없어요. 도움도 필요하고, 주변이 있어야 의 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을 얻으면 나눔과 기부를 통해 나눠 쓰려고 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요즘이지만 신 정택 회장은 이 위기를 발판 삼아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 정신으로 조금씩 돕는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정택 회장은 후배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란 다고 했다. 지역의 인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 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을 해보기를 권했다.

"동아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사학입니다. 어려운 시 기에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고, 세씩 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해 큰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위만 올려다 보지 말고 아래도 쳐다보며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택 회장은 앞으로도 동아대가 전통 과 미래가 공존하는 대학으로 힘차게 뻗어갈길 응원 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 대학과 재단, 총동문회가 삼위 일체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무궁한 발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명문사 학,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발맞춰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대학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23만 동문의 힘으로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동아대의 앞날이 기다려진다.

든든한 23만 동문을 대표하다



신정택
총동문회장
(세운철강(주) 회장)

자랑스러운 동아대의 명맥, 후배들이 계속 이어가길

이기훈
총학생회장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만든 자리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생활과 학업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개강과 함께 복잡복잡하던 캠퍼스와 강의 전 시 끝박적한 복도, 학교 앞 식당가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은 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기훈 총학생회장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과 많은 것을 해내고 싶었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 제약으로 학우들의 걱정과 불편이 많아진 만큼 남은 임기 동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에는 학생의 편에서만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와 학생 모두를 생각하다 보니 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견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소실대득(小失大得)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이기훈 총학생회장에게는 길고도 짧은 임기가 남았다. 그는 지금껏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만큼 앞으로도 학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회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학생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견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 총학생회의 역할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기훈 총학생회장의 대답을 듣다 보면 학교를 사랑하고 학우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75주년을 지나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동아대는 한강이남 제일사학으로 불리며 꾸준히 명성을 지켜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 많은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아대는 75주년을 계기로 더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과의 소통도 중요한 일부이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생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은 “저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역량과 학교의 지원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기훈 총학생회장은 학교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학우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큰 행사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보람 있지만, 고충이 해결된 후 학생들이 고맙다는 말을 해올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했다. 그만큼 남은 시간도 학우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찾아 듣고 함께 외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기훈 총학생회장은 모교를 향한 마음을 담아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동아대는 7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긴 시간 변창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고, 선배들이 걸은 훌륭한 길을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기훈 총학생회장은 개교 7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아쉬운 점도 있고,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고유한 역사를 가진 동아대에서 학우들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그 자체였다고 한다.

01

초고압가스 기자재 국산화 시동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기획과제 선정



Lab-to-Market Platform 신축건물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신규 기획과제'에 동아대학교(총괄책임자 최정주 기계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동아대가 주관하고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시험원)이 참여해 지역 내 초고압가스 기자재(밸브·관련 부품) 기업 지원 등을 위해 국비 60억 원, 시비 26억 원 등 총사업비 114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동아대는 부산 지역에 특화된 기계부품기자재산업 기업군을 중심으로 초고압가스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에 나서며,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평가부터 기술지원, 인증지원에 이르는 전(全) 주기적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구축 예정 장비와 기존 장비들을 집적화, 기업지원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신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에는 동아대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KOLAS 국제공인 시험소의 6개 분야 17개 규격에서 'KS B ISO-19880-3(수소충전소용 밸브시험)'을 추가하는 등 시험 범위도 확대한다.

동아대는 현재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수준인 초고압수소가스 70Mpa(1Mpa=10기압)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지 3년 후에는 100Mpa 기술을 확보한 신규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로부터 5년 후에는 초고압 수소를 정밀제어 할 수 있는 기자재 제조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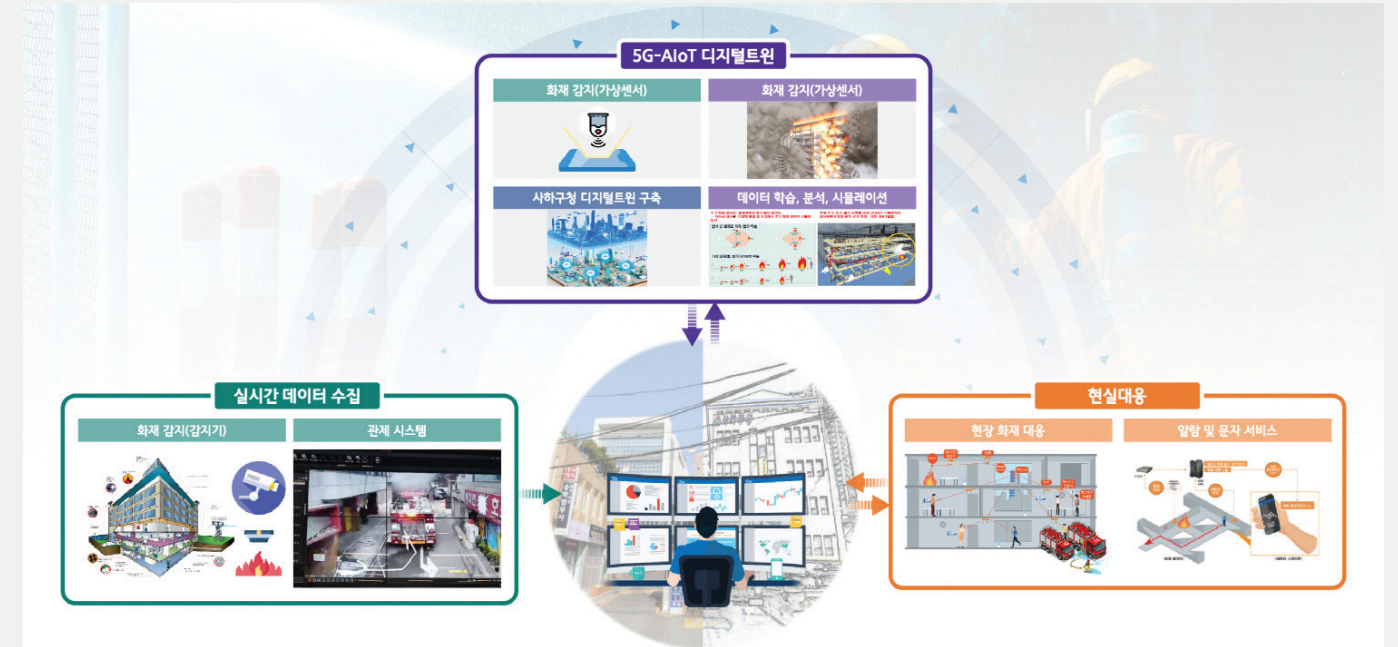
이해우 총장은 "우리 대학이 보유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연구 역량에 중앙정부, 부산시의 지원이 더해져 침체된 부산지역 기계제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 연구실에서 이뤄진 기술이 시장까지 진출하는 '랩 투 마켓 플랫폼(Lab to Market Platform)'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대학 자체 수익모델(식품, 헬스, 코스메틱 등) 발굴사업의 하나인 '동아브랜드'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미국선급협회(ABS) 승인 시험기관 지정

동아대 밸브센터가 미국선급협회 승인 시험기관(ABS Recognized Service Suppliers)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동아대 밸브센터에서 시행한 유량시험 등 4개 분야 시험은 ABS 자체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국내 기관 중 기계역학 분야로는 동아대 밸브센터가 'ABS 승인 제1호 시험기관'이며, 동아대와 ABS는 조선기자재 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02

4차 산업 신기술 접목 국가사업 주도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스마트챌린지사업' 선정



동아대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5G-AIoT 다중인지센서 기반의 디지털트윈 화재 조기대응 실증 사업' 개념도

동아대가 4차 산업 신기술을 접목하는 국가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동아대 스마트물류연구센터(소장 최형림)는 해양수산부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추진 전략의 하나로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선박에 스마트컨테이너를 연계, 완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컨테이너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 국비 85억 원을 지원받으며, 14개 기업 및 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스마트컨테이너 기술력(H/W 및 S/W) 확보뿐만 아니라 해운물류 산업 분야 '글로벌 공급사슬' 과정에서의 가시성(Visibility) 및

추적성(Traceability) 향상,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프로세스 혁신(자동화 및 간소화), 컨테이너 제조 시장 신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도시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챌린지' 사업 선정도 눈길을 끈다.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챌린지 분야에 뽑힌 전국 8개 대학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은 동아대가 유일하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캠퍼스챌린지 공모에 전국 81개 대학이 응모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11억~1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동아대는 낡은 건물과 화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5G 기반 지능형 통신망과 화재 센서를 설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화재안전 관리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다. 실증테스트는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와 사하구청의 협조 아래 진행되며, 주민 참여 리빙랩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4차 산업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기관인 (주)디아이스루션, (주)에이에스티홀딩스, (주)로제타택 등은 AIoT 기반 화재안전관리 디지털트윈 실현을 위해 3D관제 및 시뮬레이션, 3D 모델링과 가상화, 화재인식 다중인지센서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지난 6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1년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산업 킥오프 워크숍'

03

미래 융복합 인재 양성
'마이크로모듈제' 및 '리버럴아츠 전공' 본격 시행



코칭 수업 모습

동아대가 국가평생교육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A분야'에 선정돼 개발한 강좌 '디지털 논리회로와 인공지능'

동아대가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로 교육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이크로모듈제'는 기존 학과 기반 교육에서 탈피하고, 역량 중심 교육 전환과 학생의 자율적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사회수요 기반 융복합 교육과정이다. 마이크로모듈(Micro-module)은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조합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교과목 묶임으로 설계돼 학문·진로 교육의 성과 극대화 및 학과 간 연계 강화 등 효과가 있다.

2021년 1학기까지 개발된 모듈은 ▲분자유전공학과 '식물바이오테너지 어링' 등 3개 ▲응용생물공학과 '곤충산업' 등 3개 ▲기계공학과 '기계설계역량특화' ▲경영학과 'Business Management' 등 3개 ▲관광경영학과 '호스피탈리티 운영관리' 등 2개 ▲국제무역학과 '환위험관리전문가' 등 2개 ▲경영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 등 2개 ▲식품영양학과 '지역사회영양케어' 등 2개 ▲건강관리학과 '건강&운동과학' 등 2개를 포함해 모두 9개 학과 20개다.

앞으로 동아대는 이중전공제로 마이크로모듈제를 확산시킬 예정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에듀맵(Edumap)'도 개발했다. 또한 모듈 기반 학년별 교과목 이수 및 비교과 활동을 체계화한 에듀맵을 오픈 플랫폼(<http://gocareer.donga.ac.kr>)에 탑재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 웹기반 계열별 전문 어드바이저(Advisor) 시스템 구축으로

24시간 진로 지도도 한다.

이밖에도 미래형 교양교육 과정인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전공을 도입해 2022년 1월부터 매 학년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아 연간 20명을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리버럴아츠 전공의 모든 교과목은 코칭(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매시간 함께 들어가 강의 및 토론하는 방식)과 팀칭(전공이 다른 2~4명의 교수가 각 주자별로 파트를 나눠 강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리버럴아츠 전공 도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코칭·팀칭 교과목(48학점)을 리버럴아츠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새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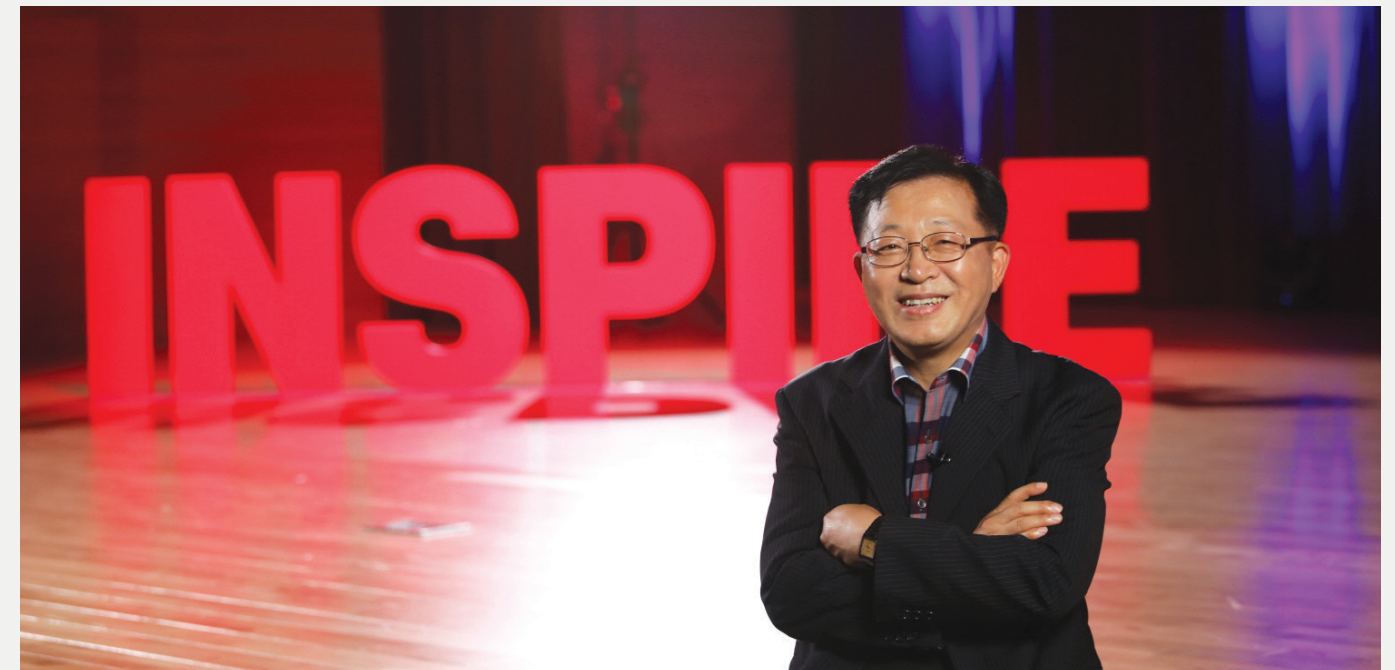
강기수 기초교양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복잡한 이슈에 직면해 있고 대학교육에도 혁신이 요구된다"며 "스스로 진화하는 학생을 키우는 'BEYOND 교육혁신' 전략을 토대로 교육내용·교육방법·학사제도 혁신을 거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MOOC 국고재정지원사업 선정돼 AI 강좌 개설

동아대가 국가평생교육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A분야'에 선정돼 '디지털 논리회로와 인공지능' 강좌를 개설했다. 해당 강좌는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에서 일반인과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질의응답과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도 가능하다.

04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성과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개소 및 '아마존 스킬즈 길드' 도입



박병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경영정보학과 교수)

동아대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으로 캠퍼스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2019년 교육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돼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을 운영하는 데 이어 'D-Square (디스퀘어)'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개소식을 열었다.

'D-Square'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신산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체험하고 연구·분석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다.

이해우 총장은 개소식에서 "D-Square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은 텍스트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업체들과 협업, 수요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사업이 확대돼 부산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구성원들의 클라우드 역량 향상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 '스킬즈 길드(Skills Guild)'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AWS 스킬즈 길드'는 조직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교육기관이 도입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공인 및 비공인 교육 세션은 물론, 기술 및 비기술 직원을 위한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 비공인 교육 세션으로는 아마존(Amazon)의 '거꾸로 일하기(Working Backwards)' 워크숍, 온라인 클라

우드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혁신 세션이 진행된다. 또 'AWS 기반 빅데이터', 'AWS 기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공인 기술교육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며, 전문 강사가 교수진 및 학생들이 AWS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익히도록 돕는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클라우드 전문성 검증을 위해 AWS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권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장(경영정보학과 교수)은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동아대는 'AWS 스킬즈 길드'를 통해 클라우드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수진과 학생들의 클라우드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동아대 송학캠퍼스 한림도서관에서 열린 'D-Square' 개소식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05

입시전형 간소화·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2년 연속 선정



동아대 입학관리처 주최로 진행된 학과별 '다우림(DAU林) 전공체험 프로그램'



경주 문화고에서 열린 동아대 입학설명회 및 이해우 총장 강연 모습

동아대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됐다.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와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 등을 잘 이행한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올해 동아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대학 입시전형을 간소화해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했고, 지역 인재 관련 전형 선발규모를 대

폭 확대했다. '전공체험'과 '모의전형'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신설, 기존 프로그램은 온라인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해우 총장을 필두로 교수들이 고교 방문 입학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6월 모교인 문화고등학교 등 경주 일대 고교 방문 입시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06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선정으로
진로 및 취·창업 지원 한층 강화

동아대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창업을 위한 사업에 연속 선정되며 지원에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0억 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 서부산 권역 일자리 매칭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에 9년 연속 선정, 5억 4,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4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대는 K-Move 사업 운영기관 90여 곳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모든 과정에서 '우수' 성과를 거뒀으며, 지원인원도 상위권 규모다.

이밖에도 2019년부터 2년간 예비창업패키지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예비창업패키지는 뛰어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멘토링, 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대는 전통기술과 고부가가치미래형 기술(4차산업 분야 '수소에너지', '드론', 'AI', '바이오') 등 부산시 7대 전략산업과 대학 보유 자산을 연계, 예비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다.

07

각종 연구기관 및 단체와 협약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 앞장서



동아대와 한국화학연구원 업무협약



동아대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업무협약



동아대와 수협재단 업무협약

동아대가 각종 연구기관 및 단체와 활발히 협약을 맺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과학기술 진흥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국가·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는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수협재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와의 협약식에서는 농업과 농촌 삶의 질 향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협재단과의 협약식에서는 어촌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상담 지원, 가족캠프 운영, 정보교류 및 홍보 업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영화의전당과 업무협약 체결도 눈길을 끈다. 동아대와 (재)영화의전당은 부산지역 교육·문화 발전과 복합 문화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링크플러스) 육성사업단은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와 'ESG경영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식'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 경영혁신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경제 기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공공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LINC+사업단은 부산 사하경찰서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부산 중구청과 '국제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08

부산의 미래 위한 산학협력 강화
박형준 시장 초청 특강 개최



지난 5월 20일 오전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동아대 명예동문증과 당선 축하패를 받은 박형준(오른쪽) 시장이 신정택 총동문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초청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강에는 동아대 교무위원과 총동문회, 학교법인 동아학숙, 경영대학원 AMP-MBA 동문회, 동아비즈니스포럼,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부산의 미래 비전과 산학협력 강화'를 주제로 지역 대학 및 인재 육성과 관련된 시정 운영 계획을 밝히며, "새로운 유형의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센터 설립과 대학혁신연구단지 조성, 협력거버넌스 운영 등 '부산형 코업(Co-op)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동문회는 동아대 교수 출신인 박 시장에게 명예동문증과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신정택 총동문회장은 "박형준 시장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시정의 난제들을 잘 헤쳐 나가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09

이해우 총장·동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등 참석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교목·교화 식수



이해우(가운데에서 왼쪽) 동아대 총장과 동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가운데에서 오른쪽) 등이 육군학생군사학교에 동아대 교목 소나무를 식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는 ROTC 총동문회와 함께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대학 교목 및 교화 식수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해우 총장과 정재학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조성제 동아대 ROTC 총동문회장 및 동문회 관계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동아대 ROTC 23기교육학과 81학번), 전미라 학생취업지원처장(현 교무처장), 국민수 동아대 학군단장, 3·4학년 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교목인 '소나무'와 교화인 '목련'을 심었다. 이 총장은 "동아대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교목인 소나무의 강인하고 힘찬 정신과 교화인 목련의 부드러움을 두루 갖춘 지도자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조 ROTC 총동문회장은 "후배 후보생들이 곧게 뻗은 소나무처럼 117 동아대 학군단의 전통과 명예를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으며 김태후 대대장 후보생은 "입영훈련 때 교목과 교화를 보면 많은 힘이 날 것 같다"며 "열심히 훈련받아 우리 대학과 학군단의 명예를 드높이겠다"고 했다.

10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8명 배출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경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6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60명을 뛰어넘는 동아대 로스쿨 설립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특히 올해 합격생 중에는 검사 4명, 로클릭(예비판사) 1명, 행정고시와 변호사시험 양과 합격 1명도 있어 어느 해보다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동아대 로스쿨은 개원 이래 모두 532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 최우용 원장은 "이번 변호사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않지만 합격자 수가 68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좀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법조인을 배출하는 전국 상위권 로스쿨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에서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3억 8,325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지난해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에서도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많은 3억 7,354만 여 원을 받은 바 있다.

11

식품영양학과·체육학과
중등 임용고시 합격자 다수 배출



식품영양학과 교수들과 2021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들

동아대 식품영양학과와 체육학과가 2021년 중등교사를 다수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식품영양학과는 올해 졸업생과 지난해 졸업생, 교육대학원 졸업생(2019~2021) 등 12명이 부산과 경남, 경북, 전남, 경기 지역 영양 교사로 합격했다. 식품영양학과는 학부 기준으로 해마다 5명이 교직을 이수하는데 올해 졸업생 중 3명이 졸업과 동시에 합격했으며, 부산 지역 영양교사 인원(T/O) 중 절반의 합격자가 동아대 출신이다. 식품영양학과는 지난해 부산지역 최초로 '영양사교육과정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체육학과는 부산지역 국립 체육교사 1명과 경남지역 국립 체육교사 2명, 부산지역 사립 체육교사 4명 등 모두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부산지역 비(非)사범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합격자이다. 오응수 체육학과 학과장은 "해마다 3~5명의 체육교사를 배출했는데 올해 특히 많은 7명이 합격해 무척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졸업생이 임용고시에 합격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진희(맨 오른쪽) 예술체육대학장과 오응수(맨 왼쪽) 체육학과장, 체육교사 임용 합격자들

12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등 연구실 및 학과 단위 다양한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연구개념도

동아대 교수들이 학과와 연구실 차원에서 연구 사업에 적극 지원해 선정, 연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4D 프린팅 메타구조체 기반 스마트 의류용 소프트 액추에이터 연구실' 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기초연구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선화·최형열(패션디자인학과) 교수와 김종욱(전자공학과) 교수, 신은주(유기재료고분자공학과) 교수 등 다양한 학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번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13억 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소장 홍영섭 교수)는 환경부 '환경성질한 예방 관리 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5년간 71억 원을 지원받으며, 고흥중교수가 연구 책임자인 신경중개연구솔루션센터는 교육부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돼 6년간 29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에코디자인사업단(단장 박은주)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주관 대학으로 최종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신발, 섬유, 소재 분야 기업 마케팅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도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관광레포츠 생활용품 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패션디자인학과 스마트테크패션전문인력양성사업단(STFCenter)은 '4차 산업 연계 미래인재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으며, 조경학과(조동길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보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생태복원 지역의 관리효율성 향상을 위한 식재 및 관리 개선 기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건축학과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돼 실무연수비(인건비 보조)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지원 받아 학생당 최대 300만 원, 40명까지 실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으며, 경찰·소방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공동으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1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 '신종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과제를 수행 중이다.

13

동아대 교수들 각종 성과로 해당 분야 전문성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이선우(왼쪽) 교수와 이해우 총장



제8대 중소기업연구원에 취임한 오동윤 교수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김기수 교수

동아대 교수들이 각종 성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이선우 응용생물공학과 교수가 제54회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욱 전자공학과 교수는 부산 로봇산업 육성·발전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해우 총장은 공학기술 연구 및 실용화 등에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내 공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 학술단체인 한국공학한림원(NAEK) '재료자원공학' 부문에서 올해 신입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오동윤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KOSBI) 제8대 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김부중 경영학과 산학협력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마케팅연맹

(AMF) 회장에 선출됐다. 김 교수가 이끄는 AMF는 올해를 '디지털 마케팅 혁신의 해'로 정하고 17개 회원국 협회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오응수 체육학과 교수는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양건석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총괄계획가에 위촉됐다.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석당박물관장)는 창의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 등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건축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또한 강영조 조경학과 교수는 부산 영도구 및 ㈜씨에이티와 진행한 프로젝트로 '제13회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박산향 기초교양대 교수는 동화책 『괜찮아 괜찮아』로 현봉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14

각 분야 교수들
눈부신 연구 성과 거둬



(왼쪽부터) 강신준 마스엔겔스연구소장, 마르크스 엔겔스 정본 전집 'MEGA(Marx-Engels Gesamtausgabe)'

동아대 교수들이 눈부신 연구 결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마스엔겔스연구소(소장 강신준 특임교수)가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 엔겔스 문헌의 유일한 정본 전집 'MEGA(Marx-Engels Gesamtausgabe)' 한국어판을 런칭했다. 이번 출간은 100년 만에 '정본 전집'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유일 마르크스 엔겔스 분야 연구소인 동아대 마스엔겔스연구소가 이뤄낸 성과라 더 눈길을 끈다. 동아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인 에스엠 대표 김재일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로부터 모두 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놓았다. 체육학과 신기욱 교수와 배주용 연구교수, 고강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박사후연구원 이 '이공 분야 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세 사람은 모두 동아대 체육학과 출신이며, 석·박사과정까지 동아대에서 마친 배 교수와 고 연구원의 지도교수는 신기욱 교수다. 반도체학과 및 화학공학과 두뇌한국(BK21 Four) 교육연구단 소속 서정화 교수팀은 재료 분야 상위 5%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논문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금속(Cu)기반의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해 전극의 일함수를 제어하고 효과적인 p-형 접촉을 형성하는 기술'을 개발한 내용이다. 서 교수는

현재 연구 관련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화학공학과 사정훈 교수가 제1저자로 활약한 논문은 SCI 학술지인 'AIChE Journal(미국화학공학회지)' 에디터 선정 논문에 뽑혀 7월호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무연(기계공학과), 이종호(바이오메디컬학과), 손종우(화학) 교수는 한국 과학자들의 우수한 논문을 알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 선정됐다. '바이오센서스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에 논문을 게재한 이무연 교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로부터 '실질적인 비전을 가진 미래과학기술의 연구자 및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종호 교수는 생화학 분야 상위 1.12% 내에 해당하는 '몰레큘러 셀(Molecular Cell)'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손종우 교수는 화학 전 분야 최고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공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정규(화학공학과) 교수 팀은 탄소 배출 많은 연료유를 화학원료로 전환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 미국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진환(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는 식품과학 영양분야와 농경분야의 세계적 상위 학술지 'Food Chemistry'와 'Industrial Crops and Products' 저널에 책임자로 연이어 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15

대학원생 및 학부생
SCI 논문 게재 및 대회 수상 등 미래 인재 '기대'



(왼쪽부터)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된 반도체학과 강주환 박사, 탁하연 교육학과 박사수료생



(왼쪽부터)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의 '지식재산교육연구 인재장학생'에 선정된 에너지자원공학과 양윤정 석사과정생, SCI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한 화학공학과 4학년 양다운, 문지현 학생

동아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각종 연구 및 대회수상 등 활약을 펼쳐 미래 인재로 기대를 받고 있다. 반도체학과 강주환 박사 졸업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1년 기초연구사업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됐다. 대학원 교육학과 탁하연(교육심리전공) 박사수료생은 (사)한국청소년학회 주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에너지자원공학과 양윤정 석사과정생은 지식재산 분야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아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의 '지식재산교육연구 인재장학생'에 선정됐다. 또한 화학공학과 4학년 양다운 학생과 문지현 학생이 각각 주저자로 활약한 논문이 SCI 등재 학술지 'POLYMERS(폴리머즈)'에 최근 잇따라 게재돼 식물 추출물 기반의 친환경적인 고분자 소재 개발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민(산업디자인학과 4) 학생은 '2021 부산 국제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창업동아리 '재다코퍼레이션' 팀은 '제1회 대학기술창업아이디어 캠프'에서 '이노베이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6

어김없는 '동문파워' 입증
동아대 동문 활약 눈길



(왼쪽부터) 장인화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육군 소장(투스타) 진급 및 25사단장에 임명된 고현석 장군(산업공학과 87학번, ROTC 29기)



(왼쪽부터) MBA 54기 홍성박 부코스텐레스(주) 부사장, 한국행정학회 '차세대행정학자'로 선정된 이영웅 기업재난관리학과 박사 졸업생

동아대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어김없는 동문파워를 입증했다. 장인화 동일철강 회장(무역학과 85학번)은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당선됐다. 장 동문은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 등을 역임, 제26대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에 선출됐다. 고현석 장군(산업공학과 87학번, ROTC 29기)은 육군 소장으로 진급해 25사단장에 취임했다. 고 장군은 지난 1991년 포병 소위로 임관, 30여 년간 3포병여단장과 육군본부 전력계획차장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를 아우르며 지휘관과 참모 직위를 역임했다.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 54기 홍성박 부코스텐레스(주) 부사장은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홍 부사장은 산업정보대학원 금속재료공학과와 미국 SALT LAKE Community College 경영학과를 졸업, 월드비전 부산지부 기업후원회 이사과 (사)이노비즈협회 서부산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국내 1호 '재난관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웅 동문은 한국행정학회 차세대 행정학자에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3명이며 지역에서는 이 동문이 유일하다.

Donation News

DONG-A UNIVERSITY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총동문회장), 학교 발전기금 2억 원 기부 “학교 발전 위한 동문들의 기부 릴레이 적극 참여 기대”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제35대 동아대 총동문회장인 신 회장이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1억 원에 달한다.

신 회장은 “동문들이 기부 릴레이에 적극 참여해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 재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1978년 세운철강(주)을 창업해 향토철강기업으로 키웠으며, 제19~20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다.



(왼쪽부터) 지난 6월 22일 오전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이혜우 총장과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동아대 총동문회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낙복 명예교수, 한국어문학과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은퇴 전부터 후배와 제자들 위한 기부 결심, 건강할 때 실천에 옮겨야”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학과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최 명예교수는 “퇴직 후 10년 내에 꼭 후배와 제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예산보다 2년 정도 앞당겨졌는데, 건강할 때 마음먹었던 걸 하자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혜우 총장은 “최 명예교수의 기부가 많은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마음의 부자가 가장 큰 부자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때보다 오늘이 자리가 감동스럽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최낙복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와 이혜우 총장이 발전기금 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기인 MBA총동문회장 1억 원 상당 ‘마이코텍스’ 금속흡음천정재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가 제24회 정기총회 및 2021년 회장 취임식에서 기부 소식을 전했다. 제25대 MBA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성기인(43기) 성원타공(주)·바이오셀빙킹(주) 회장은 1억 원 상당의 ‘마이코텍스’ 금속흡음천정재 1만 6,800여 장을 기부했다.

또 양철성(52기·부산시중양신희 이사장), 김두연(52기·(주)보성개발 대표이사), 박재분(44기·에이치이(주) 대표이사), 최임근(45기·동도테크(주) 대표이사) 동문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성두원 성원타공(주) 실장, 이혜우 총장, 성기인 회장, 성병준 이사가 ‘마이코텍스’ 금속흡음천정재 현물 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근 엔에프 대표·나용승 ㈜메포츠 대표 스마트헬스케어 장비 ‘옥시스파’·‘엑스바디’ 기부

나용승 ㈜메포츠 대표, 이상근 ㈜엔에프 대표가 각각 근골격 통합 검진 시스템인 ‘엑스바디(Exbody)’와 산소발생 복합테라피 시스템인 ‘옥시스파(Oxyspa)’ 등 모두 8,000만 원에 달하는 스마트헬스케어 장비를 기증했다.

기증받은 장비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으로 구축한 ‘D-Square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승학캠퍼스 한림도서관 1층)’에 비치, 스마트헬스케어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교육과 연구·분석 등에 사용된다.



(왼쪽부터) 이상근 ㈜엔에프 대표, 이혜우 총장, 나용승 ㈜메포츠 대표가 기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부

김은규 (주)홈니즈 대표
4,500만 원 상당 전해수기 기부

경영학과 93학번 김은규 (주)홈니즈 대표가 4,500만 원 상당의 전해수기 1,800개를 현물 기부했다. 전해수기는 수도물을 전기분해해 살균수를 만드는 장비로 일상생활에서 방역 등에 사용되며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내 1세대 소형 가전제품 제조·판매 중소기업 (주)홈니즈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 사회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경 대외협력처장이 김은규 (주)홈니즈 대표와 현물 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남해 망운사 성각스님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지난 2002년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성각스님(대한불교 조계종 남해 망운사)이 명예박사회 총회에서 명예박사회 회장을 맡으며,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선화(禪畵, 깨달음의 정신을 그림과 글씨에 담아내는 불교 수묵화)의 대가로 꼽히는 성각스님은 국내 최초 '선화 제작 분야' 기능보유자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됐으며, 후학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장학사업과 나눔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이 대한불교 조계종 남해 망운사 성각스님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부

이승규 AMP 동문회장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이승규(53기, 성심종합건설(주) 대표) 제48대 AMP 총동문회장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경영대학원 AMP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사명감과 책임감과 느낀다"며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기치 아래 총동문회가 더욱 성숙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승규 신임 AMP 총동문회장과 이해우 총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기진 동명산업(주)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4호 기부

기계공학과 85학번 성기진 동명산업(주) 대표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4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성 대표는 '대한산악연맹 우수산악인패'와 '여수시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전남테크노파크원장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10년 부산지역 대학 산악부 최초로 에베레스트(8848m)를 등정한 '동아대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대장'을 맡았다.



(왼쪽부터) 성기진 동명산업(주) 대표, 이해우 총장, 김현준 경영대학장이 발전기금 기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준택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수협중앙회장)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사)동아비즈니스포럼(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제56회 정기포럼을 성황리에 개최, 임준택 회장이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동문 기업인 중심으로 지난 2011년 발족해 2017년부터 사단법인으로 거듭난 (사)동아비즈니스포럼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표 기업인 1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지역 정·관·재계 인사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왼쪽부터) 임준택 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수협중앙회장)이 이해우 총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황소용 회장 등 AMP 54기 원우 일동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4기 수료식에서 황소용 54기 원우 회장을 비롯한 원우 일동이 학교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수료식에는 이해우 총장과 김현준 경영대학원장, 신정택 총동문회장, 이미근 AMP동문회장,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경영대학원은 지난 1969년 개원 이후 2,000명 이상의 석사(MBA) 동문과 3,000명 이상의 최고경영자(AMP) 동문을 배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동문이 강한 사례중심 교육의 요람'이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이 황소용 AMP 제54기 원우회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태호 (주)태영지엔티 대표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5호 기부

기계공학과 85학번 이태호 (주)태영지엔티 대표이사가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5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는 동문과 기업인의 도움으로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경영인을 길러내고자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주)태영지엔티를 설립, 조선 부품 생산 업계에서 기업 활동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경영대학원 AMP 55기로 입학해 모교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 이태호 (주)태영지엔티 대표이사, 김현준 경영대학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성용 (주)대동 대표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6호 기부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재학 중인 하성용 (주)대동 대표이사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6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전남 여수 소재 건설기계설비 업체 (주)대동을 운영하고 있는 하 대표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평소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작은 힘이 나마 학교에 도움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 하성용 대표, 이대동 교학부총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부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7호 기부**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이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7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88년 생명자원과학대학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한 한 회장은 올해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 55기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세일즈맨에서 시작해 30여 년간 업계에 몸담아온 한 회장은 현재 부산·경남 아우디·폭스바겐 공식 딜러사인 유카로오토모빌(주) 등을 운영, 경영인들의 롤 모델로 손꼽힌다.



(왼쪽부터) 김대경 대외협력처장, 이해우 총장,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 김현준 경영대학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미희 갤러리 래(Rae-來) 관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8호 기부**

김미희 갤러리 래(Rae-來) 관장이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8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제55기 최고경영자과정(AMP)을 밟고 있는 김 관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취지에 공감한다”며 “좋은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갤러리 래’는 지난 2014년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진행,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과 김미희 갤러리 래(Rae-來) 관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동현 (주)대단한놈들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9호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55기 서동현 (주)대단한놈들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39호 주자로 참여했다. 서 대표는 꾸준히 사회에 기부하며 복돈의 의미로 끝자리에 ‘1원’을 추가했다며 동아대에도 1,000만 1원을 기부했다. ‘주)대단한놈들’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광고대행 등이 주요사업이며, ‘배달의 민족’ 협력사이다. 지난해 엔 제5회 국민일보 공공정책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지난 7월 13일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김현준 경영대학장이 (주)대단한놈들 서동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40호 기부**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 53기 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가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40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남 양산 소재 한라정밀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국제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해외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교류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경영대학원 원우들이 합심해서 학생 교육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현준 경영대학장이 김홍덕 한라정밀 대표와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부

**제21대 의과대학 학장단 일동
의대 발전기금 6,000만 원 기부**

제21대 의과대학 학장단 일동이 의과대학과 의과학실험지원센터 발전기금 6,0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에는 박환태 학장(2,000만 원), 정성욱 교무부학장(1,000만 원)과 공헌희 교육부학장, 윤진호 연구부학장, 왕립 의학과장, 김도경 의예과장, 최희원 의학교육실장, 강도영 바이오헬스융합연구소장, 고희중 의과학실험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동아대 의과대학은 이번 학장단 기금을 계기로 더 큰 재원을 마련, 구덕캠퍼스를 지역 대표 초일류 메디컬 캠퍼스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환태(맨 오른쪽)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제21대 의과대학 학장단 일동이 이해우(왼쪽에서 네 번째) 총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호 디자인환경대학장(건축학과 교수)
건축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디자인환경대학장을 맡고 있는 이성호 건축학과 교수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학장이자 교수로 솔선수범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프랑공인건축사(D.P.L.G.)이자 한국건축가협회 소속 건축가인 이 학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올해의 건축가상,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 부문 금상, 부산국제건축대전 베스트어워드, 대구건축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이해우 총장과 이성호 건축학과 교수(디자인환경대학장)가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학과 대학원생 일동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기업재난관리학과 대학원생 26명이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가 소액 정기기부를 활성화하는 대학 발전기금 모금 프로젝트 ‘만만한 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자발적 기부 사례로 눈길을 끈다. 대학원생들은 “이동규 교수님이 책 고교료를 기부하시는 모습과 ‘만만한 도전’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았다”며 “국내 재난관리학 1호 박사를 배출한 기업재난관리학과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동대 교학부총장과 기업재난관리학과 대학원생들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희진·김미정 동문 자매
모친故박귀렴 씨 명의로 의대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동아대를 졸업한 쌍둥이 자매 김희진(42), 김미정(42) 씨가 모친故박귀렴 씨 명의로 의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생물학과와 섬유공학과 98학번인 쌍둥이 자매의 모친故박귀렴 씨는 투병 끝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동안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동아대병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세 자매 중 막내가 동아대병원에서 태어난 등 적잖은 인연이 기부의 계기가 됐다.



김희진(왼쪽에서 두 번째) 동문 등 세 자매가 박환태(왼쪽에서 세 번째) 의과대학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앞으로 더 밝아지는 동아대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아인들의 헌신을 가슴에 품고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1년 1월~2021년 6월)

단체				후원의 집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메디파워	(주)KB렌트카	대훈기획	성일숯물갈비	초원복국	(주)엔컴퓨터아카데미	더진국하단점
(주)대호기계	(사)동아비즈니스포럼	(주)엘컴퓨터아카데미	도리원	소담	초유플라워	(주)올복스	송월타올
(주)비에프씨씨	생기나라하의원	(주)올복스	동경초밥	송이아구찌	카플러스	(주)이메스에스	동래삼계탕
(주)신도시엔지니어링	구충환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공불 동아대점	(주)장가유통	동원장수촌
(주)에듀피플스	의과대학 동문회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뚜썸플레이스동아대점	(주)유디엠	갯마을낙지
(주)유디엠	정한방병원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파라바케뜨부민점	(주)지앤지코퍼레이션	최고경영자과정 54기
금융학과 재경동문회	정한방병원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행복한빅마마삼겹	금호호텔	금호호텔
동도테크(주)	최고경영자과정 54기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화국반점	동아건축동문회	누리마을김자랑
동아건축동문회	한방유비스(주)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흥부가	대비행	대비행
리눅스(주)	한방유비스(주)	(주)장가유통	동래삼계탕	아이시티안과의원	이모식당	대물림 청송집	대물림 청송집

개인																			
가다경	강영조	고상석	구경인	권효정	김나영	김동우	김민혁	김선미	김승태	김유근	김정희	김지현	김태우	김혜련	남주현	류은아	박경렬	박병규	박수현
강금주	강원희	고선우	구내희	권호철	김나희	김동진	김민희	김선준	김승희	김유리	김종욱	김지혜	김태정	김혜영	남찬섭	류지웅	박경미	박복자	박수우
강기수	강윤환	고성원	구민지	김가은	김남국	김동현	김범수	김선지	김시동	김유진	김종민	김진경	김태철	김혜정	남창우	류지희	박경식	박봉경	박신향
강나현	강은미	고수현	구부희	김강민	김남수	김동훈	김범수	김선영	김시범	김유경	김종수	김진고	김태훈	김혜진	남태현	류연덕	박경우	박상민	박연주
강대성	강인정	고영석	권다원	김경문	김노훈	김동후	김병수	김성철	김아람	김유진	김종석	김진길	김태희	김효룡	남영택	류영택	박경원	박상식	박영란
강대하	강정호	고윤성	권동식	김경민	김노현	김두진	김병준	김성재	김양근	김영익	김진석	김한별	김호은	김환은	노동근	문기범	박광민	박성욱	박영태
강동국	강주용	고정홍	권민주	김경인	김다은	김동현	김병찬	김성진	김영미	김은주	김종현	김진영	김한수	김희경	노소정	문경원	박광춘	박상현	박예리
강동일	강지현	공민규	권성길	김경희	김대경	김영주	김보성	김세진	김영식	김일영	김주연	김진홍	김현우	김희정	노옥희	문석찬	박규환	박석주	박용성
강동훈	강지후	공병민	권순일	김광란	김대륙	김영홍	김보연	김세훈	김영일	김정현	김주영	김진호	김현경	김희진	노유진	문성빈	박기현	박성봉	박윤경
강민석	강창현	공윤경	권영근	김광진	김대준	김미란	김봉진	김소윤	김영지	김재한	김준모	김찬희	김현수	남경민	노현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재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김재현	김준범	김창석	김현아	남경인	노영준	문재민	박달애	박성재	박은정
강민재	강대원	공현준	권영선	김구	김대중	김미주	김부중	김소은	김영진										



만만한 도전

1만 원의 작은 마음이 모여 감동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기본정보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관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동문 (입학연도 / 학과·과정)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약정정보	
약정금액	매월 () 만 원
기부목적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학과에 기부 (학과)

일시납 문의 051-200-6012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수집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필수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약정금액, 납입방법, 기부목적	
선택수집정보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맞춤형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학교와의 관계	
	학교 소식지 발송, 감사선물 발송, 행사 안내 등 기부자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제3자 제공정보	제공 받는자 : 금융결제원(자동이체 납입 시)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수집정보 수집에 미동의 할 경우 익명의 기부자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기부자 예우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__년 월 일

기부권유자 : _____

약정자 : _____ (인)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051-200-6012
 팩스 051-200-6015
 이메일 fund@dau.ac.kr



Quantum Leap 2024*

글로벌	지역을 품은 글로벌 대학
앞선 연구	특성화·융합 연구 지원
열린 교육	도전, 소통, 창의 인재
산학협력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성과 경영	지속가능한 운영 체제



송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